

북리어

[좋은 친구들]

11월호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다.



CONTENTS

어떤 칸 째움 크니어 유 하으이
중간점검

싸에씨복
아띠 클래스
가드닝
쿠킹 클래스

플리응 마오 클랑클랑
C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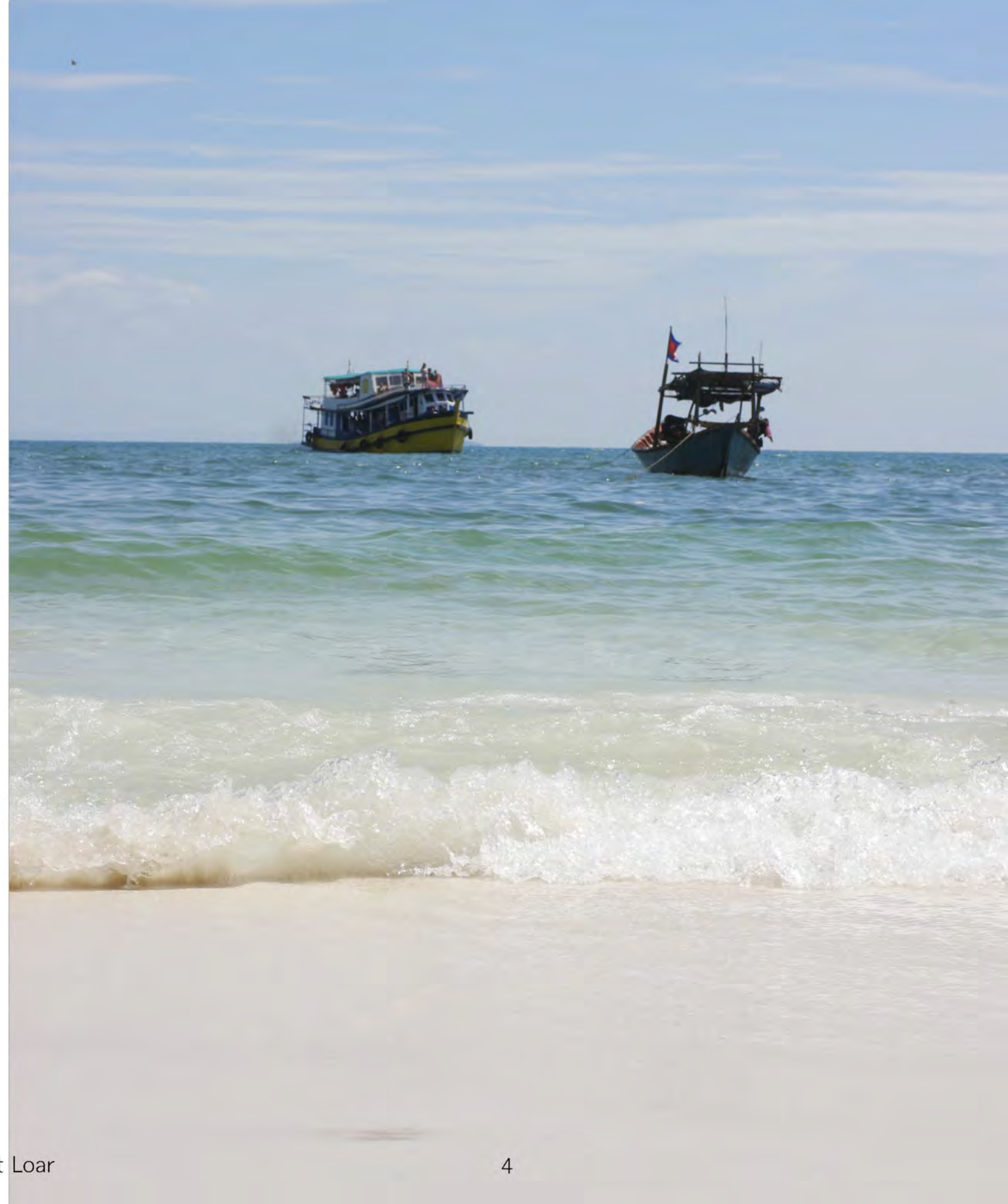
떠으 나?
산책, 길, 그리고 사람
Killing Field
Trip II

개인 에세이



November

Mon	Tue	Wed	Thu	Fri	Sat	Sun
30 쿠킹클래스, 마을아이들 수업						1 수원Y여세린 간사님과 왕궁 나들이
2 양동화 간사님, 김동찬KB국장님 캄보디아 도착	3 중간평가발표, 양동화 간사님과 개인면담	4 KB 현지지점 방문, 중간평가팀출국	5 중간평가 정리	6 영화수업, 마을아이들수업 계획	7 휴식	8 육개장 끓이기
9 캄보디아 독립기념일, 마을산책	10 Low level 영어수업첫시작, 마을 아이들과 놀이	11 CDP농부님, IDE스텝과미팅, 센터연못물고기 잡기	12 쌀 수확 기념 쌀국수 파티, 필드아이들과놀이, 영어수업	13 탄, 우덤씨와 YDP 활동계획 미팅, 영화수업	14 킬링필드 방문	15 휴식
16 홈가드닝 활동, 마을 아이들 수업 첫 시작	17 지렁이 집 짓기, 영어 수업	18 폭우, CDP 필드 방문 취소	19 폭우, 필드 현장 상황 확인 답사, 마을아이들수업, 영어 수업	20 마을 산책, 마을 안 가까운 학교 구경	21 다솔 프놈펜 병원	22 휴식
23 마을아이들수업, 집에서 영화 '바람' 보기	24 긴공휴일 시작 (본 옴 똑)	25 시아누크빌 출발, 바닷가에서 휴식	26 배 타고 코오롱 섬으로 들어가다, 해수욕	27 하루종일 해수욕, 배 터지게 먹기	28 하루종일 배,버스,툭툭 타고 집으로..	29 쿠킹클래스 잔치국수 준비



어떤

이 곳 간달에서의 3개월, 91일간의 생활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우리는 이 곳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곳에서 어떤 주민이 되었을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어떤, 어떤.



까리따스 센터에 올 때 신발을 벗는 자리가 달라졌고



매일 센터 안에만 앉아있던 우리가
밖에 나가 노는 시간이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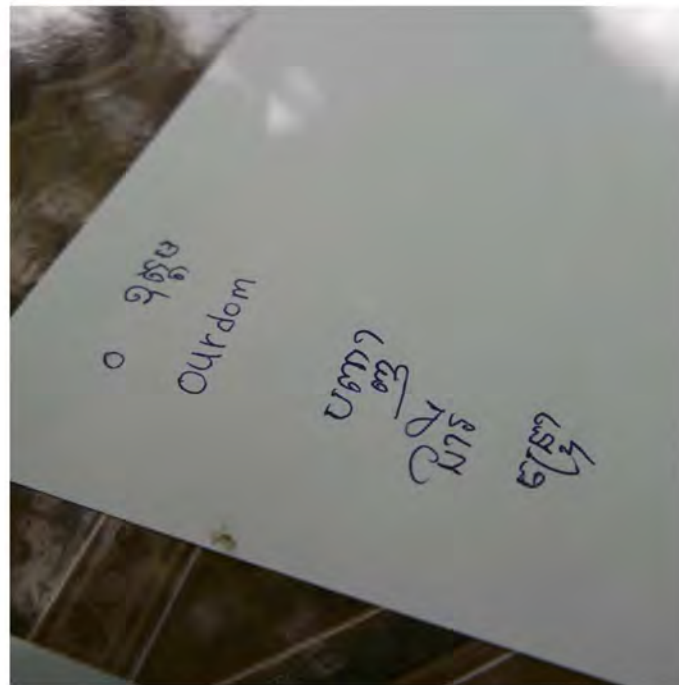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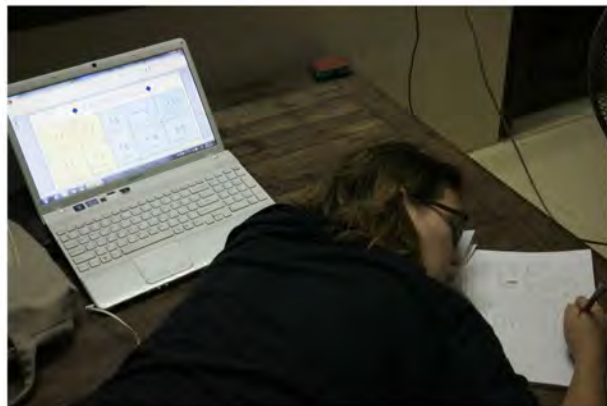
까리따스 바깥 의자에 앉아있다 개미가 올라타면 식겁했지만



이젠 손으로 훌훌 털어내고



열심히 크메리어를 배우고자 했던 우리는
점점 아는 단어만 쓰기 시작했고



모자에 팔토시에 긴 바지에 운동화까지 중무장을 하고 다니던

우리는

그냥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팔토시는 종종 까먹고 다닌다.



모자를 잃어버린 짚뜨리아는 손수건을 모자대신 쓰기 시작했고



더운 날이나 힘든 날 딱꺼뜨꺼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집에 있을 때도,
 품에 가서도,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 먹기
 시작했고



[버블: 크메르어, 죽같은 음식]



매일 아침, 까리따스 앞에 있는 이동식 슈퍼에서 버블을 사 먹기 시작했고
 (따꺼뜨꺼도... ㅎㅎ)

정말 자주 사 먹던
 레아네 집 미차를
 레아의 출산으로 인해
 못 먹게 됐다.



야채나 채소류는
마트가 아닌 시장에서
장을 보고



특특은
거리별로 적당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었고



Meut Laor

매일 돌아가던 길을 골목길로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플르응 플르응"

이여이는 우리보고 항상 우리 집 마당쪽 불을 켜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두 개의 불을 켜다.

마당쪽 불 하나, 평상 불 하나.

[플르응: 크메르어, 전기, 전등]



우덤과 나래는 집에서 머리를 깎기 시작했고

짠뜨리아는 앞머리를 안 자르기 시작했다.





빨래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이고



이여이께서 간식을 주시기 시작했다.



매일 하던 축구도 안 하는 날이 생겼고



이 때만 해도
숫자도 못 외우고
뭉가 뭉지
종이에 다 써뒀는데
이젠...

저녁시간 할 게 없어서 섯다를 시작했고 결국 섯다도 질렸지만
다른 걸 못 찾아 오늘도 섯다를 했다.

오빠 울지말고 말해봐..
오늘 얼마 잃었다고...?



※카드 한 장에 25원꼴로 저히는 오직 재미만을 추구합니다.

뽀얏는 요리가 늘었고
 주방용품은 알뜰하게 정리가 됐고
 플라스틱 통을 받아오면 반찬통으로 쓰기 시작했다.
 찜찍과 똑가에, 개구리와 메뚜기와 친해졌고
 새같은 나방과 날아다니는 바퀴벌레과는 아직도 안 친하다.
 우뎜은 현지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고
 나래는 뒷머리를 주기적으로 깎고
 뽀얏는 한국 미용실에서 머리를 한다.
 우뎜은 여전히 현지음식을 정말 거의 안 먹고
 나래는 고수든 것만 아예 못 먹고
 뽀얏는 고수가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잘 먹고
 짬뜨리아는 고수가 들어도 대부분 잘 먹는다.
 노란 망고가 없어 슬퍼했고
 덜 익은 망고도 이제 잘 먹는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고
 까리따스 문이 잠겨있으면 아이들은 우리 집에 와서 우뎜과 뽀얏를 찾는다.
 9월 초, 닉이 줬던 분홍팔찌는 까매졌고
 넷 다 신발 하나씩은 못 쓰게 됐다.
 품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이래도 되나 하면서 낮잠을 잤지만
 이제 자전거를 빌려 따꺼뜨꺼를 사러 간다.
 한 번 생각하고 조심스럽고 궁금해도 참았던 우리는
 여전히 궁금해도 참지만 싸우고 놀리고 때리고 장난친다.



9월
 그리고 몇 일 더 지나는 동안

어떤,
 우리는 이런,
 생활을, 변화를, 관계를
 하고, 갖고, 맺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원 김한길 종원화
 "종원화" 되다간, EAON
 관쪽거리다와 유사하며
 정선연령이 어려워지고
 사람을 자주 열받게하며
 밝은 거꾸 사용하고
 폭력을 부추기지만
 그래도 미워할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은
 갖게됨을 뜻한다.

WARNING

그 동안 다솔이 특유의 감성적이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보고서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앞으로의 내용이 다소 우울하고 비관적이며 그저 담담할 수 있습니다.



칸 쭈웁 크니어 유 하으이

Long time no see.

#9. 라온아띠, 한국 손님을 맞이하다.

한국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왔다. 우리 넷을 제외한 새로운 한국 사람이 간절했던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손님들이 찾아왔다. 아무리 쿨한 우리 팀이어도 속 안은 각자의 고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간사님들도 YMCA 간사님 이자, 라온아띠 선배, 그리고 자원활동 경험의 선배로서 어찌면 이전부터 우리와 비슷한 고민과 생각들을 해왔을 것이다. 오랜만에 뵈는 간사님들 앞에서 우리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소연도 하고, 자랑도 했다. 간사님들 앞에선 한국에서처럼 그냥 철부지 대학생들이 되는 것 같다.

수원 Y 여세린 간사님 캄보디아에 오시다

10월 29일 밤 10시 반 여세린 간사님이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셨다. 너무나 오랜만에 우리 네명이 아닌 한국 사람을 보는 일에 들뜨기도 했고,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했다. 처음 캄보디아에 온 날 이후로 공항에 다시 온 건 처음이었다. 처음 공항에 왔을 때와는 달리 외국인인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 보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여유롭게 웃음 지으며 깐달 주민 포스를 풍겼다. 월말에 캠페인과 보고서들, 중간평가 준비 덕에 한껏 피곤에 찌들어 있던 우리는 그나마 멀쩡한 옷과 얼굴들을 준비하고 간사님을 환영했다. 우리는 수많은 캄보디아 시민들 속에서 간사님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고, 간사님의 해맑은 웃음을 보고 그제서야 간사님을 찾을 수 있었다.



숨은 세린 간사님 찾기 ?



안녕 애들아 :)

여 간사님과 일상 1



캄보디아에 이렇게 맛있는 양식집이 있는 줄 몰랐다. 역시 캄보디아는 여 간사님의 나와바리였다.

간사님 나이스 샷.



쿨하게 점심을 결제하신 후 간사님은 조금 작아지셨다. 한국 스트리트 잡지 표지 같은 사진 세린 간사님 맘에 드시나요 ?



소주 ?



아직은 다정한 간사님과 종원

여 간사님과 일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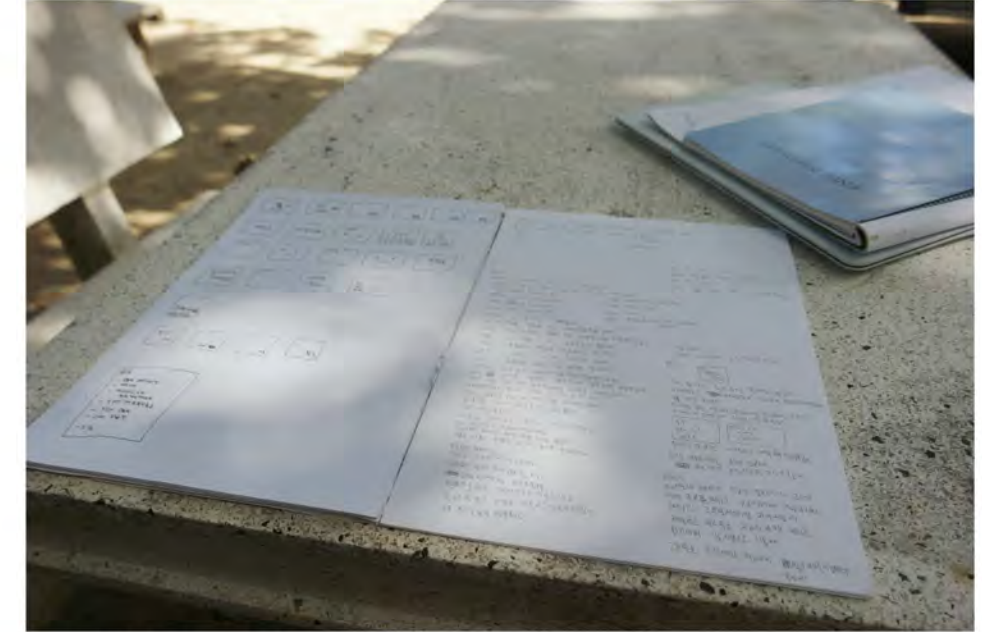
중간평가 „ 준비

중간평가를 준비해야 할 일정이 빠듯했다. 시간적으로 갑자기 중간평가 일정이 확정된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온 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드려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 더 막막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까리따스에서 해 온 활동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인지, 활동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과 관계들 속에서 하게 되는 생각들을 중심



으로 풀어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며 조금 우왕좌왕했다. 더 오래 고민하고 준비하면 좋았을텐데 부담감을 갖고 조금하게 말그대로 평가라는 것을 준비한다는 생각에 모두들 지쳤던 것 같다.

보통 우리 팀의 다툼은 무엇인가를 회의할 때 대개 시작되는데, 간사님이 옆에서 중심을 잡아 주셔서 너무 멀리 산으로 가지 않고 중간 평가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나름 발표 ppt 구상과 멘트들을 정리하기도 했고,



중간에 일정에 대해 상의 할 것들이 있어서, 교무실에 불려가는 느낌으로 회의실에 들어가기도 했다.

양동화 감사님,
김종찬 과장님 도착



중간평가 „ 발표



(철 없는 신입사원들과 목 타는 맹 부장님)

‘캄보디아 팀은 정말 쿨하다’

한국에서 국내훈련 할 때부터 들었던 말이다. 우리 팀은 서로를 대하는 관계에서도 그렇고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말 그대로 쿨할 때가 많다. 그렇게 된 데에는 아마 나(한길)의 영향도 클 것이다. 일을 할 때에는 각자 역할에서 충실해서 빠릿빠릿하게 일이 진행되고, 관계에서는 절대 감정소모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끈적끈적한 스타일들은 아니다.

이런 우리팀이 이번 중간평가 발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초점이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다. 발표를 모두 마치고 나서야 생각했지만, 정말 말그대로 평가를 받고 점수를 매기는 평가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의 우리의 활동들을 조금 포장해서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들 속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그 활동의 의미들이나 자원활동 속에서 각자 개인적일 수는 있지만, 정말 항상 머릿 속을 떠나지 않는 깊은 고민들을 끄집어내지 못했다.

이후에 간사님들과 따로 더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고민을 풀어내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활동을 공유할 앞으로의 시간들에는 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이다.

중간평가 ” 커뮤니티 방문



까리따스 센터와 더불어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인 CDP 커뮤니티에 간사님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CDP 활동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저번 기수들의 활동들에 비해 우리 기수에는 우리가 직접 농부님들과 몸으로 땀 흘리며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시기의 까리따스의 CDP 주활동은 핵심 농부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지난 농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작물 농사법이나 신 기술들을 까리따스 또는 다른 단체들로부터 교육 받는 일들이다.

우리는 농부님들께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가들도 아니기 때문에 농부님들이 교육 받는 자리에 함께 참여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CDP 활동의 의미를 찾는 일이 어려웠다.

간사님들과 함께 CDP 커뮤니티에 방문할 때, 우리가 특별히 한 일이 없다고 생각돼 조금 민망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커뮤니티 방문을 모두 끝낸 후 양동화 간사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나는(한길) CDP 활동의 의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이 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는 사실은 누구보다 까리따스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까리따스의 CDP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의 농부님들께서 한번이라도 우리의 존재로 활동에 대한 호기심이나 재미, 의욕이 생기실 수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나름 우리가 이곳에서 꽤나 재밌는 외국인으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을에 올 때마다 항상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호의를 보여주신다.

이런 상황들이 직, 간접적으로 활동으로 이어져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나는 정말 감사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까리따스에 크고 작은 노동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활동들에서 더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중간평가,, 마무리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이 곳에 왔을까.

아무리 '나는 이 곳에 주기보다는 배우러 왔다'라고 되뇌어 봐도, 자원활동가라는 타이틀이 내게 주는 거창하고 과분한 압박감을 쉽게 무시하기가 힘들다.

내 기대치는 이만큼이나 큰 데, 내가 하는 활동들은 특별하지 않고, 이전 기수 활동들의 답습이다. 내 스스로 나의 활동들에 확실히 확신을 갖지 못한다. 아닌 척 포장 하지만 사실은 나도 우리가 하는 활동의 의미들을 미처 다 이해 못 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자원활동가라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 자신은 물론 남들까지도 납득시킬 수 있는 활동의 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었다.



결국 같은 활동을 해도 스스로 의미를 해석하는 힘이 없다면 확신을 갖지 못 하고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활동들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해 내는 간사님들을 보며 조금은 내가 남은 기간 동안 가야 할 방향이 얼핏 보인 느낌이다.

까리따스의 학생들은 우리를 티쳐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섯 개 짚은 내가 배우고 있는데, 하나라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싸에씨복

It is a kind of joke to ask someone how are things going?

#10. 라온아띠, 다시 시작하다.

10월 마지막 주부터해서 이런저런 바쁜 시간들을 보냈다. 생각해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유스들과 평소처럼 얘기하고 놀 시간은 없었다. 중간평가까지 마무리하고 보니 우리와 자주 놀던 유스들이 점점 더 많이 안 보인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많은 회의를 했던 10월달과는 달리 11월부터는 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새로 시작했다. 어떡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ATTI CLASS



English

10월 한 달간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세 명으로 줄었다. 탄과 피름, 그리고 학생들과 논의 한 결과 11월에는 한국어 수업을 폐지하고 영어 수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수업을 완전히 확정하기 전까지는 세 번 정도 변화가 있었다. 영어 고급 수업을 없애고 CD반 학생을 위한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설하려고 했으나 학생들이 일주일에 2회 수업을 원해서 일주일에 두 번 개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수업을 듣던 학생들 또한 영어 수업을 계속 듣기를 원하여서 영어 고급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하기로 했다.

ATTI CLASS

한 명 한 명 내용을 숙지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수업의 진도가 느리더라도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춰가며 물어보고 반복했다.



이번 초급 수업에는 마을에서도 참여했다.

종종 근처 마을 산책을 자주 하던 잔뜨리아는 마롬이 영어공부를 하고 싶어한다는 걸 듣고 두 번째 수업부터 '얼마든지' 와도 된다고 알렸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부터 마롬과 반냐도 우리의 수업에 함께 했다.



ATTI CLASS

영어수업

학생들의 수준 파악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초반에는 변동이 있어서 수업의 감을 잡기 어려웠으나 초급 수업은 11월 한 달동안 점점 자리를 잡아가 복습 50%, 수업 50% 정도의 비율로 어렵지 않게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수업을 듣기 원하는 주민이 있어서 현재 같이 수업을 듣는 중이다. 반면에 고급수업은 11월의 일정이 계속 맞물리면서 한 번 밖에 수업을 하지 못했고, 수준 파악을 하지 못해 첫 수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11월 한 달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잘 따라와주고 나도 신이 나서 수업을 한 만큼 즐거웠다. 9월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시행 착오 없이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12월에는 CD반 학생들도 모두 다른 주로 실습을 나가고, 점점 더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도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나만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는 없다는 점을 영어 수업을 여러 차례 돌아보면서 배운 것 같다. 누군가의 한 시간을 얻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또한 말이다.



ATTI CLASS

Movie

Real Steel & Colombiana

그 동안 이안 백화점, 러시아안 마켓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절대 찾을 수 없던 제대로 된 캄보디아어 더빙 영화 DVD들을 드디어 찾아냈다.

왕궁 앞 리버사이드를 걷던 중에 DVD 가게를 보았다. 이제는 거의 직업병으로 DVD 가게라면 일단 들어가고 본다. 항상 유스들이 캄보디아어 더빙 영화는 없냐고 물을 때마다 왠지 미안했는데, 더빙 DVD를 폭풍 구매하고 뿌듯해졌다. Real Steel, Colombiana 등을 Movie class시간에 유스들과 함께 봤는데 그 동안 영어로 영화를 보던 유스들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었다. 2시간씩 크메르어 리스닝 연습 잘 하고 있다. 매주 계속되는 Movie class에 갈수록 많은 유스들이 찾아주고 있다. 거의 CGV이다.



ATTI CLASS



마을 아이들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알파벳, 뛰어놀기



처음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똑따따로 시작했다. 영화시간에 보여줄 DVD와 함께 산 더빙 애니메이션 DVD 중에 첫 날 우리는 '해피 피트'를 보여줬다. 아이들은 똑따따 보는 걸 좋아하니까 무난하게 첫 시간은 성공하겠지? 생각했다.

[똑따따: 크메르어, 애니메이션, 만화]

엇 러어. 엇 러어.

당연히 좋아할거라는 생각을 깨고, 몇몇 아이들이 재미없다며 다른 애니메이션을 보여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비교적 낯선 장소인 까리따스 센터에 온 것이 신기해서인지, 애니메이션이 재미가 없어서인지 남자 아이들은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까리따스 센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미술품을 보관하는 장소에 숨기도 해 주의를 받기도 했다.

[엇 러어: 크메르어, 안 좋아, 별로야]





마을 아이들 수업은 다른 아띠수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유스들의 수업이 마치는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수업을 그때부터 한 시간정도로 생각하고 5시쯤부터 마을을 돌며 아이들을 모았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한 아이가 수업이 언제 마치냐고 물어보면서 6시에 가도 되냐고 물어봤다. 아무 생각없이, 애니메이션이 정말 재미가 없나보다 생각하며 그래도 된다고 대답해주었다. 6시가 넘어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우리는 수업을 마쳤고 아이들을 데려다주려고 센터를 나섰다. 그런데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까리따스 쪽으로 오고 계셨다. 아, 우리가 하는 시간이 너무 늦구나.. 그걸 생각하지 못했구나..

아차, 싶었다.

자유롭지 못한 공간, 제한적이지만 너무 늦은 시간
꼭 까리따스 안에서 해야 하나?

첫 마을 아이들 수업을 하고보니 생각보다 아이들은 통제가 되지 않았고 공간의 제약은 많았고 시간도 너무 늦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을 아이들 수업을 꼭 까리따스 안에서 해야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어차피 우리가 아이들을 모아야 하고 장소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도 되는 거니까.





우리는 까리따스로 갈 아이들을 모으는 대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에 가서 옆에 앉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 간 색연필과 매직펜들과 종이를 꺼내고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그렸다.

나무도 그리고 자전거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
 그렇게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꾸룹 란! 꾸룹 란!
차 그려줘 차 그려줘!



얘네 다 나한테 계속
차랑 자전거 그려달래ㅠㅠ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려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려줬다.
꽃, 자전거, 차, 오토바이, 그러더니 자기들이 갖고 노는
캐릭터 카드를 들고와 그려달라고 했다.
우덤은 정말 집중해서 캐릭터들을 그려줬다.
그러면 아이들은 색연필로 알록달록하게 색칠을 했다.



Meut Laor



그렇게 한참을 우리는 잘 하지도 못하는 실력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려줬다.
그러자 점점 혼자 그리거나 우리가 그려준 그림에 직접 색칠을 하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근처에서 아이들과 함께 몸으로 놀았다.









그 동안 간간히 오며 가며 만나 놀던 마을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정해진 장소와 여러 여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하고 있다. 센터에서 유스들의 수업이 끝나는 5시 30분부터 해 지기 전까지 만나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사실 아이들이 센터에 와 뛰어 노는 일이 까리따스 내에서 서로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와 아이들을 잘 만나고 잘 놀고 있다. 수업이라는 말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꼭 하루에 영어 단어 한 두 개씩을 알아가야 수업인 것은 아니니까. 그 동안 마을 아이들 만나는 일에 소홀했던 게 부끄러워질만큼 한 달간 정말 깊게 소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될지 몰랐고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를 좋아해 줄 지 몰랐고 이렇게 아이들이 예뻐 죽겠을 지 몰랐다. 정말 말 그대로 다 예쁘다.



평소 산책삼아 집 근처를 돌아보며 마을 아이들과 놀곤 했었다. 그럴 때 종종 언제 배우러 가냐고 한글 배우고 싶다고, 영어 배우고 싶다고 나에게 말했었다. 그러면 마을 아이들 수업을 어떻게 할지, '수업'의 형태가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했었다. 혹은 그렇다는 이유로, 혼자일지라도 그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 미룬 것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 11월이 되었고 마을 아이들 수업으로 나가자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나오게 됐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나는, 뭘 두려워한 걸까. 예쁜 우리 아가들. 정말 볼때마다 너무 예쁜 아이들이다. 그냥 색연필 몇 개, 종이 몇 장 들고 나오면 되는 것이었다. 굳이 수업의 형식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냥 어떻게 놀아줄까 조금 더 고민하고 들고 나가면 되는 것이었다. 거창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내가 조금 더 고민하면 되는 것이었다.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나를 보면 골목 끝에서 달려와 나를 안고 웃음을 보이고 내 볼을 자그마한 손으로 감싸 톡톡 두드리고 업어달라 떼쓰고 내 무릎 위에 앉고 동생을 주려고 그림을 한 장 더 그려달라 하고 놀아달라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 손을 잡고 말을 걸어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서 절대 자기 이름을 안 알려주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런데 또 수업이라는 이름이 붙어 나가니 욕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다. 그냥 색연필 몇 개, 종이 몇 장 우리가 가진 걸 들고 나가서 놀아주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큰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놀아주는 건 너무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가진 걸로 놀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걸 들고 나가는 건 우리가 한 국으로 가버리면 다시 똑같아지는 것이었다. 거리에 놓여진 쇠파이프나 목각을 갖고 놀고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은 이걸로 충분히 재미있어하지만 위험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우리가 없더라도 아이들끼리 비교적 안전하게 놀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되었다. 여기 있는 재료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놀이를 알려줄까. 같은 그림을 그려도 알파벳 하나라도 알려주면 나중에 영어를 배울 때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가드닝

엉겅퀴&비료 채우기
지렁이 집 짓기



하이드로포닉에 비료와 엉겅퀴를 적절히 섞어 골고루 적당히 넣어서 다음 작물을 키울 준비를 했다.



까리따스에서 기르고 있는 물고기 밥으로 쓰기 위한 지렁이를 키우기 위해 지렁이 집을 지었다. 시멘트와 물, 모래를 섞는 것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시멘트를 섞고
전체 집을 두 개로 나누기 위해
벽돌쌓는 것을 도왔다.
처음엔 다들 서툴렀지만
하나 둘 쌓아가면서
요령도 익혔다.
그리고
우듬의 깔끔하고 완벽한
물길내기를 끝으로
지렁이 집 만들기 완성!





COOKING CLASS

항상 그렇듯, 까리따스 센터의 유스들이 다 모이는, 가장 많은 유스들이 모이는 11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쿠킹 클래스를 열었다. 어떤 메뉴를 해야 유스들도 잘 먹고 우리도 여기 재료로 만들 수 있을까, 매달 중순만 되면 고민하게 된다. 국수 면을 밥 대신 먹기도 하고 꾸이띠우라는 캄보디아식 쌀국수를 먹는 것을 생각해 우리는 한국의 국수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 메뉴는 잔치국수!

국물 잘 내고 면 삶아서 고명만 얹으면 되는 수준만 알고 있는 우리는 한국에 있는 국수 장인...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바빴다. 그래서 세 가족의 국수비법을 모아 따끄마으 시장에서 재료도 사고 맛있게 만들어 보았다. 많은 양의 국수를 삶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맛있게 유스들과 나눠 먹을 수 있었다. 유스들의 점심 시간에 함께 내어 놓는 것이다보니 처음엔 유스들이 안 먹어서 슬플 뻔 했지만 점심을 다 먹고나서 우리가 만든 잔치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어주었다. 함께 만드는 과정이 적고 음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즐거웠던 11월의 쿠킹 클래스였다.





청경채 송송 찐뜨리아
인상이란 인상은 혼자 다 쓰는 뽀냐
사진 못 찍어줘서 미안해
당근 송송 우뚝 :)





Srey Nick

Song Dany



Udom
Dina
Dikoon

닉!! 왜 그거 밖에 안 먹어!!!
남 짜란짜란!!!
[남 짜란: 크메르어, 많이 먹어!!!]



푼리음 마오 클랑클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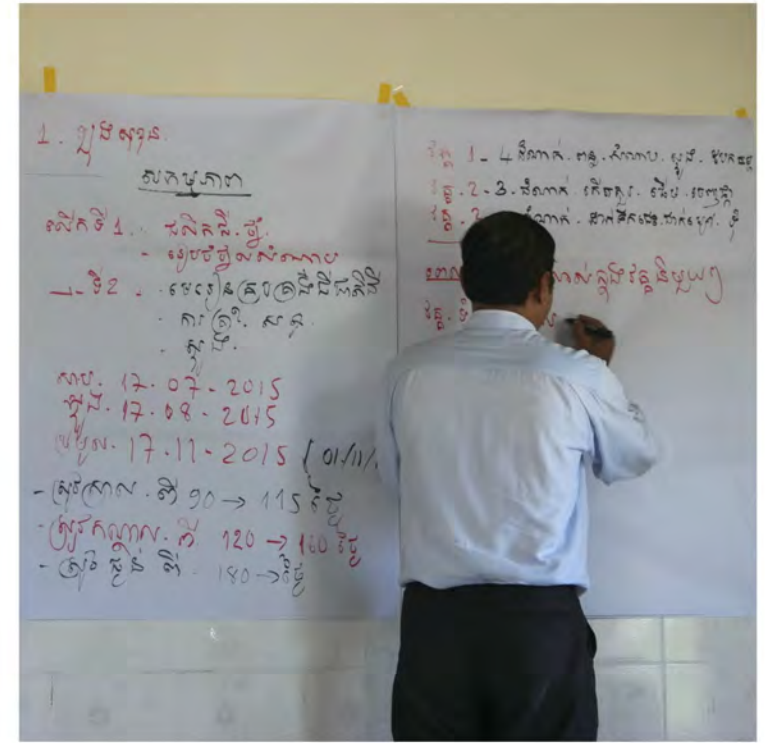
It is raining hardly.

#11. 라온아띠, 비를 원망하다.

항상 우리가 품에 가기 전날 밤에는 비가 왔다. 그것도 많이. 비가 많이 오면 땅이 비에 젖어 농사할 땅을 준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온 시기가 우기이기도 하지만 유독 우리가 품에 가기 전 날에는 하루종일 맑다가도 밤에 비가 쏟아진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품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까리따스를 가면 CDP 담당자인 썸냥이 너무 속상한, 미안한 얼굴로 오늘은 품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비 때문에 농사준비를 할 수 없는 농부님들도, 썸냥도, 우리도 속상한 날들이 이어졌다. 제발! 이제 더 이상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농부님들이 농사를 짓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길..ㅠㅠ



10월달과 비슷하게
 이번 달의 시작도 회의였다.
 IDE에서 오신 분께서
 농사법과 작물에 관한 내용을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알려주셨고
 농부님들은 관련 내용을 열심히 듣고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셨다.
 이번 회의에는 세끄데이씨도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영어로 설명해주셨다.





이 날은 농부님들이 쌀 수확을 하고 다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툭툭을 타고 갔는데 잘못된 목적지에서 내리게 되어서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시범삼아 쌀 수확을 하는 날이라 소량의 쌀 수확은 이미 끝나고 다들 점심을 먹기 위해 모여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님들, 까리따스 스태프들과 함께 점심을 열심히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먹고 점심시간동안 시간도 남고 그 동안 할 것도 없어 우리는 근처 마을의 학교로 갔다.

”애들 어엄청 많아!”

정말이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처음 볼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은 창문으로 우릴 보며 신기해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 중 몇몇은 우리에게 “Hello!”라며 인사를 건네고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있던 곳의 바로 옆 집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놀고 있길래 우리와 놀아달라고 장난을 치고 놀이를 알려주기도 했다. 그러자 나중에는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을 털며 놀고 있는 우리에게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장난을 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비때문에 한동안 품에 가지 못 했다.
 그런 날이 계속되자 썸냥은 왜 우리가 품에 들어갈 수 없는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핵심 농부님들의 밭을 가서
 직접 밭의 상태를 확인하겠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썸냥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땅은 겉으로 보기에
 비에 젖어있었다.

우리가 일을 하던
 병 찍씨의 밭을 둘러보고
 다른 핵심 농부님들의 밭도
 하나씩 둘러보러 갔다.





떠으 나?

Where are you going?

#12. 라온아띠, 우리가 몰랐던 곳들

“나 마을 애들이랑 놀다 올게!!”

“나 마을 산책 갔다 올게!!”

“나 코롱 섬 가보고 싶어!! 그렇게 예쁘대!!!!!!”

“나 진짜 킬링필드 꼭 가 볼거야. 이번 주말에 가자.”

라고 말만 했던 곳들을 가보았다. 그 곳에는 알지 못했던 골목이 있었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알지 못했던 역사가 있었고 알지 못했던 캄보디아가 있었다. 알지 못했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산책,
길

그리고

사람





우리 집 옆으로 가면 좁은 골목길이 하나 있다. 산책을 하러 그 길로 가다보면 이내 아이들에게 발목을 붙잡히고 만다.





아이들이 있는 골목을 지나 길을 따라 쪽 걸어가면
하와이같은 야자수 나무와 새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조금 더 걸어가다보면
알지 못했던 초등학교가 하나 나온다.



길에서 만난 아이들
길에서 만난 풍경,
길에서 만난 학교,
길에서 만난 골목,
길에서 만난 사람들.



산책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





때론, 어쩌면 훨씬 자주, 우리가 산책을 나가지 않아도
마을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주었다.



KILLING FIELD

여느 관광지와는 달리 조용한 곳.
고통과 아픔이 묻혀있는 곳.
캄보디아가 잊을 수 없을 기억,
킬링필드를 방문했다.





뚜얼슬렝 박물관을 한 번 가보긴 했지만 우리는 아직 킬링필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 했다. 같은 민족의 사람들끼리 학살이 일어난 곳이란 것 정도.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만큼 킬링필드라는 큰 사건의 중심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킬링필드로 향했다. 그 곳엔 엄숙한 분위기를 요청하는 팻말이 곳곳에 붙어있었고 실제로 조용했고 엄숙했다. 각자 가이드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의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KILLING FIELD

곳곳에 유골들을 발굴한 곳과 발굴하고 있는 곳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학살의 장소에는 그 영혼들을 기리기 위해 사람들이 팔찌를 걸어두었다.





Part 2

T R I P

Koh Rong Island
in Sihanoukville



프놈펜에서 5시간정도를 달려 시하누크빌에 도착했다. 크메르어로는 '검봉 싸오' 시하누크빌은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하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여행이나 신혼 여행으로 자주 오는 곳이라고 한다. 이 곳에 도착해 짐을 숙소에 대강 풀고 각자 조금 쉬다가 저녁이 되어 밥을 먹으러 나갔다.





사실 이 곳 시하누크빌이 유명한 이유는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섬들 때문이다. 시하누크빌의 바다도 예쁘긴 하지만 섬에 들어가면 더 예쁘고 맑은 바다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섬들 중 가장 관광객이 많고 유명한 코롱 섬(Koh Rong Island)에 가기로 했다. 그렇게 배를 약 3시간정도 타고 코롱 섬에 도착했다.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해변가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축구도 하고 낮잠도 잤다.
고립아닌 고립생활이었지만 평화로웠다.
하루종일, 매일매일 기분좋은 바람이 불었다.
그게 정말 좋았다. 어디서든 기분좋은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코롱 섬에서,
아름다웠던 한 여름의 11월.





Cold coffee

종무원(Udom)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

- H.M. Tomlinson -

한기일 (Ppannya)

몇 번을 썼다 지운다. 이번 한 달은 정리해 쓰는 게 정말 안 된다.

‘결국 남는 건 사람이었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라고 쓰면 되려나. 그저 생각이 많아 힘든 한 달이었다. 라온 아띠 활동에 대한 고민들은 솔직히 많이 열어지고, 개인적인 나에 대한 고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한테 더 많이 집중한 한 달이었다. 활동들은 점점 더 바빠진다. 지금의 시간들 멍 때리다가 자칫 다 흘려버리지 않게 균형을 잡아야겠다.



나라(Narae)

캄보디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은 캄보디아인은 거짓말쟁이에 비정한 사람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캄보디아인이 선하고 상냥하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캄보디아 사람은 그냥 사람인 것 같다. 캄보디아에 사는 어떤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가격을 덤터기 씌우고, 어떤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어떨 때는 같이 사는 세 명의 한국인보다 현지 친구가 더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무슨 말을 하는 지 전혀 이해를 못할 때도 있다. 아마 캄보디아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난 화를 낼 것이다. 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모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들어도 옳다고 머리를 끄덕이진 못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서 세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느낀 바로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니깐. 그냥 개개인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니깐. 요즘은 '나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캄보디아인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듯이, 한국인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난 이때까지 '한국인들은~'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다. 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캄보디아에 나와서야 내가 그 사람의 한 가지 특성만으로 그 사람 전부를 파악한 듯이 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그렇게나 싫어하던 '여자는~'이라는 말처럼 '남자는~'이라는 말을 해왔고, 내가 싫어하는 '동남아 사람들은 게으르다'라는 말을 쓰듯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치는 걸 좋아하고 외국에서 결국 한국인에게 사기 치는 건 한국인이다.'라는 말을 해왔다.

간달에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아직은 완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도 든다. 언젠가는 이 생각들이 정리되고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난 조금 더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봐야겠다.



다솔(Zantrea)

#1

가까워졌다 싶을 때 너무 다름을, 혹은 여전한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또 그러다가도 비슷한 듯, 가까운 듯싶다. 몇 번씩이나 반복하며 울적하기도 기쁘기도 하면서 관계에 대해 배우고 있다.

#2

나를 보면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나도 따라 웃게 된다. 내 이름을 불러준다. 나를 볼 때마다 장난을 친다. 언제든지 말을 건네도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 궁금해지는 게 많아진다. 나를 꾸미지 않아도 나를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속에서 나는 마음을 놓게 된다. 항상 나를 걱정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웃어주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보면 달려와 내 다리를 꼬옥 끌어안고 업어달라 조르는 아이들 속에서 나는 안도하고 있다. 그 속에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는 듯하다. 개인적인 일로 혹은 이런저런 생각끝에 울적해하다가도 정신없이 웃으며 놀게 된다. 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위로를, 토닥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3

다섯 달. 뭔가를 주려고만 했던 때에는 꽤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걸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를 변화시키기에 다섯 달은 너무나 짧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적었다. 처음엔 조바심을 냈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젠 그냥 여기서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사람들과 있는 시간을 즐기며 살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툇북을 타면서 맞는 바람과 품의 넓은 지평선, 나무와 하늘을 즐겼다. 그런데 이번 달은 그런 게 줄어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너무 익숙해졌나, 그래서 혹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골목으로 나가고 한 번 더 마을로 나가야겠다. 항상 생각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지만 내 마음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겠다.

RaonAtti

다음 달에 만나요 :D

한국YMCA전국연맹 

KB 

 Caritas